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28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⑥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⑤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10월 12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016. 10. 12



시 승격 30주년,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안산인

고려 태조시대부터 이름을 가진 1000년 도시 안산
1986년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첫 삽을 뜬 후 인구 76만,
서해안 최고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달 30일, 각계각층의 안산시민이 모여 시 승격 30주년을 자축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날은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자랑스러운 안산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 승격 이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도시로 성장한 안산
우리들 마음 하나하나에 '안산'이라는 그 이름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관련기사 6면-

2 노인일자리 사업 빛을 발하다
인생 2막,
재취업으로 시작하세요

4 중소기업의 '키다리아저씨' 안산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다

5 We Ansan!
신화는계속된다
ok저축은행 배구단 힘찬출발

6 올해는 우리가 히트다 히트!
'안산 시민의 날'
가장 빛난 사람들

안산 일자리 빛나다!

100세 시대, 나의 두 번째 일을 찾다
 “일하는 기쁨도 얻고, 용돈도 벌고”



일흔이 넘어도 동네 경로당에 가면 막내소리를 듣게 되는 시대, 한국도 어느덧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살아갈 날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정년퇴직 나이는 변함없고 60세가 넘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혹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연로한 노인의 몸으로 장시간 노동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누구에게든 일은 살아가는 활력을 준다. 작은 일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용돈 정도 벌 수 있는 내 일이 있다는 것,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제 2막을 열게 해주는 작은 문이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하루 3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 작은 재능을 나누면서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알게 된다. 안산시는 올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노인일자

리 수가 늘어가고 있고, 7개 기관에서 하던 사업도 각종 주민센터까지 확대됐다. 전선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마을공방 ‘장수공동작업장’이 지난 6월 일동에 1호점을 개장했고, 10월에 이동과 선부동 공동작업장도 문을 열게 된다. 각 기관에서 2,216명의 어르신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돕기도 하고 아파트에서 근거리 택배배송도 하며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안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2,216개의 행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하다.

어떤 혜택을 받나?

월 30시간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에게는 월 20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어떻게 신청할까?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 일자리 관련 7개 수행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상록구노인복지관 031-414-2271
- 단원구노인복지관 031-489-5006
- 동산노인복지관 031-400-8702
- 상록구노인지회 031-410-3623
- 단원구노인지회 031-403-8787
- 안산실버인력뱅크 031-482-4546
- 안산시니어클럽 031-401-8181



김수자 (74세) | 상록구노인복지관 '찾아가는 실버인형극단'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 눈을 볼 때 보람을 느껴요”

어린이집을 직접 찾다니며 인형극 공연을 하는 '찾아가는 실버인형극단'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상록노인복지관에서 2008년에 결성된 극단은 현재 총 16명이 A팀 B팀으로 나눠 어린이집으로 공연을 나가고 있어요. 주로 나이가 어린 유아들에게는 '엄마 사랑해요' 같은 감성적인 공연을 하고, 조금 나이가 든 친구들에게는 유괴방지, 성희롱 방지, 환경보호, 편식습관 고치기 등 주제가 있는 공연을 해요. 공연을 볼 때,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볼 때면 많은 보람을 느껴요. 우리 멤버들은 1년에 6번 정도는 전문 강사를 모시고 인형극이나 마술을 배우는 등 계속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신청한 어린이집에서 매년 꾸준히 우리들을 찾고 있어요. 시흥이나 과천까지 인형극 공연 요청이 들어와 외부로 나갈 때도 있죠. 2012년에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타기도 했어요.



“아이들과 놀다보니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놀이 선생님'은 안산 지역의 보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전래놀이 활동을 진행해요.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돌이나 나뭇잎, 솔방울 등 자연물을 통해 노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죠.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요. 요즘은 핵가족 세대라서 아이들이 어른들 볼 기회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만나다보니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요. 시니어클럽 담당자는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고학력자 어르신들도 많아요. 꼭 직업을 찾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아성취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 '옛날놀이 선생님'이 많이 알려지지 않다보니, 지금은 아는 원장님들 소개로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명자 (73세) | 장차조 (66세) | 안산시니어클럽 '옛날놀이 선생님'



오은섭 (81세) | 배복남 (74세) | 단원구노인복지관 '마음베프미'

“함께 이야기하다보면 힐링이 되죠”

홀로 사는 노인들 집을 방문해 청소나 빨래, 설거지도 해드리고, 말벗도 돼 드려요. 보통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3번 집을 방문해요. 2인 1조로 함께 움직이다 보니 서로에게 많이 의지가 되요. 짝꿍이랑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힘든 일은 서로 나눌 수 있어 좋아요. 대상자 중 한 분이 신장투석하는 분이 있는데, 혈압이 자꾸 떨어져 어지러워하면서도 그걸 혼자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그 아픔을 나는 모르니까 더 애처롭더라고요. 이 일을 하며 대상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면 오히려 제가 힐링을 받아요. 자식 얘기 하다보면 친구도 될 수 있고, 자매도 될 수 있고, 제가 누구 돕는다기보다는 대상자분들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먼 곳에 배치되면 불편할 때도 있지만, 자손들한테 조금이라도 손 안 벌리고 병원 갈 때 간단한 약값이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좋아요.

“누님들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실버인력뱅크에서 운영하는 '맛사랑공사랑' 두부음식 전문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음식점은 유기농 콩을 활용해 두부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꽤 좋아요. 점심때는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손님도 많고, 여름에는 콩국수를 찾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인기가 좋아서 이 근처에 2호점도 생겨요.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해주는 건강한 식사를 하는 기분이예요. 밑반찬도 너무 맛있어서 금세 동나더라고요. 식당에서 열한 분이 일하시고, 두부공장에서 세 분이 일하시는데, 제가 여기 청일점이에요. 그러다보니 누님들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죠. 가족처럼 대해 주시니까 힘들어도 재밌게 일할 수 있어요. 돈보다도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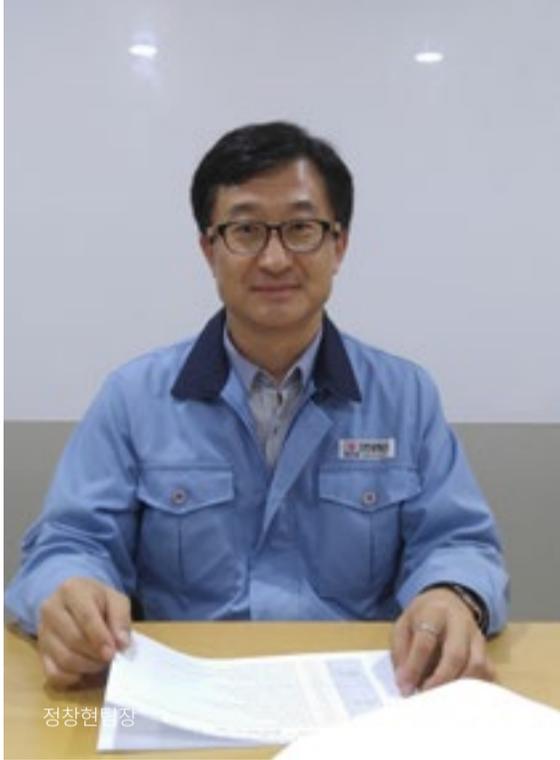


이상길 (69세) | 안산실버인력뱅크 '우리콩두부사업단'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히든챔피언 안산刑 강소기업 육성 현장을 가다②

대한광통신(주), 광섬유의 처음부터 끝입니다!



정창현 회장

대한광통신(주)는

1974년 9월, 대한전선(주)의 자회사인 (주)대한제작소로 설립한 뒤 1978년 KIST와 공동으로 MCVD 공법의 광섬유 개발을 시작해 1980~1983년 MCVD 공법으로 광섬유 생산을 개시했다. 1984년에는 VAD 공법으로 광섬유를 생산하는 한편 2001년에 대한전선 광사업부에서 광섬유 전문생산회사로서 (주)옵토매직이라는 회사로 별도법인으로 설립됐다. 2011년 11월, 대한전선의 광케이블사업부를 영업양수 체결로 흡수합병해 대한광통신(주)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광통신 역사의 산증인

광섬유란 빛·레이저, 또는 발광 다이오드 등에서 나오는 광파를 반송파로 이용하는 통신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광섬유 제작에 성공하여 1981년부터 실용화되었다. 그 중심에는 국내 최초로 광섬유를 개발한 대한광통신이 있었다. 광섬유는 기계적, 전기적 특성이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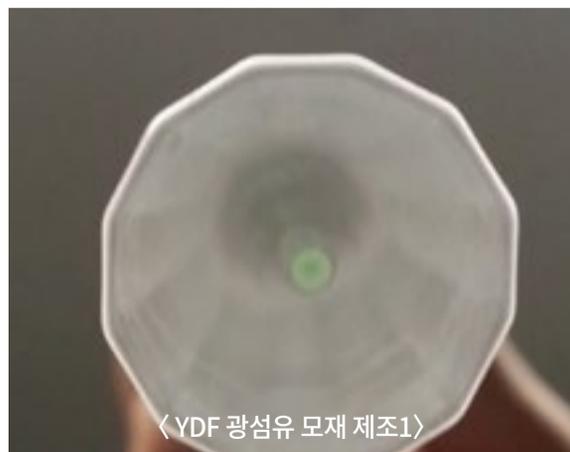


<YDF 코어 모재 제조>

하며 광대역성과 저손실성은 다른 전송로의 추종을 불허한다. 광섬유를 이용한 선로는 기존의 동선(銅線)을 이용한 선로에 비하여 전송손실이 적고 근접한 선로간의 유도현상이 없으며 신호대역 폭이 대단히 넓어 광대역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구리선 수만 가닥은 광섬유 한 가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륙간 광통신케이블이 놓여지고, 최근에는 아파트 각 가구에까지 설치되고 있으며 '정보 슈퍼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실현이 광통신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

2004년 4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11월에는 수분을 제거해 통신 불모지라 불리는 특수 파장 밴드에서 손실을 낮추는 기술인 'VAD공법의 최적화를 위한 무수광섬유 제조기술'로 산업자원부의 한국신기술인증서를 획득했다. 2005년 '광통신용 무수광섬유'가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 2009년에는 2006년에 이어 과학기술부의 한국 신기술(NET) 인증서를 획득했다. 2010년 '구부림강화광섬유' 국내 첫 양상화, 2013년 국내 최초 극저손실 광섬유(ANYWAVE-LL) 개발, 2014년 200um 광섬유(ANYWAVE 200) 개발 및 광통신 유무선 솔루션 구축, 2015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등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한국전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형 파트너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물론 해외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YDF 광섬유 모재 제조1>



<YDF 광섬유 모재 제조2>

위기를 기회로!-We Connect The Earth

통신기술은 현재 폭발적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인터넷 성장의 가속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현재 광통신에 있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는 문제는 바로 경제성이다. 터미널 장비의 단가와 시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등 아시아 전역과 중동, 유럽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오세아니아 및 중남미 등 신규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사우디, 쿠웨이트, 호주 등 해외 11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국내 광섬유레이저산업의 촉매역할 기대

광섬유와 광케이블은 중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최근 2년 전부터 판매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 모재(母材)를 수입하는 회사들은 원가경쟁력이 떨어져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다. 광섬유의 모재부터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술력과 대량생산에 적합한 VAD 공법, 34년이라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지만 앞으로는 특수광섬유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군사용 광섬유레이저, 암, 혈관치료 등 의료용, 우주용 광섬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고출력 레이저용 희토류 첨가 광섬유 개발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훈 박사와 연구 개발 중이다.

정훈 박사는 "레이저광섬유를 생산·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전 세계에서 2~3곳밖에 없을 만큼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러한 광섬유를 개발하겠다고 찾아온 대한광통신에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개발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탄했습니다. 개발제품의 특성이 최종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타사와 견줄 만큼의 특성치를 확인한 단계에 와 있으며, 머지않아 우수한 제품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국내 광섬유레이저산업의 촉매역할을 기대하며 수입대체효과를 통한 국내업체의 가격과 기술경쟁력을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We Ansan! 신화는 계속된다

좌측 위부터 : 김세진감독, 마르코보이치, 박원빈, 김홍정, 이시문, 곽명우, 송희재, 전병선, 한상길
좌측아래 : 송명근, 이강주, 박기현, 정성현, 이민규, 김정훈, 강영준

안산OK저축은행배구단 2016~2017 시즌 힘찬 출발



김세진 감독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의 스포츠 대항은 보는 이들에게 순수한 즐거움과 강한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남자 프로배구단은 2013년 창단돼, 안산을 연고지로 창단 2년 만에 2014~2015, 2015~2016 시즌 V리그 챔피언이 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 있던 시민에게 위안이 됐다. 안산이 큰 슬픔으로 실의에 빠져 있을 때 OK저축은행 배구단은 2년 연속 시즌 챔피언이 되는 기적을 이루면서 안산시민의 삶에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OK저축은행 배구단이 다시 승리의 기적을 이루어 안산시민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며 “안산! 파이팅!”이라고 했다.

2016~2017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열린 지난 10월 8일 홈구장 상록수체육관 출정식에서 김세진 감독과 코치, 선

수들은 이기는 경기로써 올 시즌도 우승의 기적을 이루어 자며 의지를 다졌다. 주장 김홍정 선수는 “안산시민이 열광하고 감동하는 경기를 보여드리는 것이 올 시즌 목표”라며 “상록수체육관을 찾아주시는 안산 팬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 인트로 영상과 신규응원가가 소개된 이번 출정식에는 안산 팬 2백여 명도 함께 했다. 지난 9월3일 선수단 용인숙소에서 열렸던 제1회 팬 캠프 소개영상은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안산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팬 백여 명이 참가해 선수들과 4개조로 나뉘어 명랑운동회를 열고 친목을 다졌던 것. 팬 캠프는 참가자들을 모을 때부터 신청자가 쇄도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다. OK저축은행 배구단 구단주 APLO그룹 최윤 회장은 “배구단의 존재이유는 경기를 통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인데, 짧은 창단 기간에도 불구하고 2시즌 연속 챔피언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데에는 진정성을 갖고 OK저축은행 배구단을 연고지로 맞아주시는 안산시와 안산시민의 지지와 응

원 덕분”이라며 “올 시즌도 우승해 팬 캠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이벤트 등 안산 팬들께 기쁨을 드리겠다. 안산시와 안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15일 OK저축은행 개막전 홈경기가 현대캐피탈과의 경기로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다. 선수들의 강한 스파이크에서 힘을 얻으시길...

백미란 명예기자_ whity0218@naver.com



주장 김홍정 선수

* 자세한 경기일정이 궁금하시다면...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배구단 홈페이지 참고 : <http://www.oksavingsbankrushncash.com>

시 승격 30주년 축하하는 ‘안산시민의 날’ 기념식 열려

지역사회·문화·경제 발전에 공헌한 시민 표창



사진설명_기념식후 야생화 꽃씨가 담긴 풍선을 각자 희망을 담아 날리는 모습

지난 9월 3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는 안산시가 서해안의 작은 농어촌 마을에서 인구 76만의 서해안 중심도시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 ‘안산시민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단체 회원, 안산시장, 안산시의회 의장, 시·도·국회의원 등 안산시민 천 여 명이 참석해 1986년 안산이 시로 승격된 이후 30년 동안 이룩해 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다함께 희망찬 미래를 그렸다. 안산시립국악단은 곳곳한 도전정신 ‘프론티어’를 식전공연으로 준비해 들려줬고, BJ무용단은 ‘천년안산의 꿈’을 춤사위로 보여줬다. 식은 오늘의 안산을 이루는 데 기여한 시민과 단체

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으로 이어져,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5개 부문의 ‘안산시 문화상’과 ‘최용신봉사상’ 등 6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안산시 문화상 학술 부문에는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배기동(65세) 교수, 예술 부문 안산문인협회 이경자(79세) 前회장, 교육 부문 송호초등학교 주면식(62세) 교장, 지역사회개발 부문 대한적십자사 안산지구협의회 박관숙(62세) 회장, 체육 부문 여자배구 국가대표 김연경(29세) 선수에게 수여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안산시협의회 김옥례(69세) 부회장에게 최용신봉사상이 수여됐다. 안산시문화상 학술 부문 수상자인 한양대학교 배기동 교수는 안산지역의 역사자료 조사, 수집, 발굴, 보존 작업에 매진하고 안산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 부문 이경자(79세)씨는 안산문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시조집을 발간하며, 많은 예술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등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해왔다. 지역사회개발 부문의 대한적십자사 안산지구협의회 박관숙 회장은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돕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 나들이, 북한이탈 주민이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 화합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기여했으며, 최용신봉사상 수상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안산시협의회 김옥례(69세) 부회장은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무지개 봉사단을 이끌며 북한이탈 주민에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개인이 아닌 우리 단체에 주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안산시민의 날 가장 빛난 사람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문화상 봉사상 수상자	 학술 부문 배기동	 예술 부문 이경자	 교육 부문 주면식	 지역사회개발 부문 박관숙	 체육 부문 김연경	 최용신봉사상 김옥례	 공로패 황옥동
	제19회 안산시 중소기업 대상	 기업경영부문 유병진	 기업발전부문 우지훈	 노사화합부문 유재원	 노사화합부문 임용석	 장인계승부문 왕재현	 산업재해예방부문 권경남

요리가 즐거워지는 시간

LIVE 요리경연도 보고 유익한 FOOD 강좌도 들어요

제26회 LIVE요리경연대회 & FOOD강좌가 오는 10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LIVE요리경연대회 & FOOD 강좌는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안산의 맛 발굴과 음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LIVE요리경연대회는 사전 접수와 예선을 통해 외식부, 학생부 각 20팀이 경연을 벌인다.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다양한 FOOD 강좌와 부대행사가 열린다.

다. 부대행사 참여 신청은 식품위생과 문자수발신 전용폰(010-7483-6275)으로 10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여행사명, 이름, 나이, 주소, 핸드폰 번호를 찍어 보내면 되고 중복참여는 안 된다. 안산시 음식점 영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배운자의 함초 김치 만들기>, <함동철 셰프 분자요리쇼>등 시연강좌를 열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젊은 이들의 낭만 커피로스팅 배우기> 체험 강좌가 열린다.





이야기 지도를 들고 추억을 되새기며 걷다 화정동 꽃우물길

뜨거웠던 여름을 떠나보내고 가을이 무르익는 풍경을 찾아 도심 외곽의 '화정동 꽃우물길'을 걸었다.

화정동 버스정류장에 그려있는 꽃우물 마을 이야기지도를 따라 걸음을 옮긴다.

꽃우물마을(花井)은 꽃이 피어있는 우물에서 유래한다. 옛날에는 우물에서 주먹만 한 물방울이 끝없이 샘솟았다는 꽃우물 아래에선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그 아래에선 아이들이나 남자들이 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이 우물이 선조들의 생명의 젖줄이었음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 논두렁의 호박넙쿨이 계단 아래에까지 구르며 호박잎 사이로 호박꽃이 방긋 고개를 내민다. 꽃우물 아래 논에서는 고개 숙인 벼들이 바람에 물결치고 멀리서 콧바인이 논에 길을 내며 다가왔다 다시 멀어져간다. 햇벌이 따갑다. 손차양으로 농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니 밭에서 고추가 점점이 빨간 꽃처럼 매달려 익고 있다. 폐교된 화정초교가 화정영어마을로 변신한 이야기, 전쟁을 겪은 종탑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유서 깊은 마을이 고즈넉하다.

낮 12시가 되자 종소리가 온 마을에 퍼진다. 그 소리에 코스모스가 몸을 흔들고 분홍색 들장미 여린 꽃잎이 부스스 일어난다.

잠자리도 화들짝 몸을 일으킨다.

화정교회 옆으로 굴다리를 지나면 너비울마을이 나온다.

단종 복위를 꿈꾸던 김충주(金忠柱)가 숲을 구워 연명하던 곳 고송정지(枯松亭址), 그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과 할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로 일생을 보낸 충효를 기념하는 오정각(五旌閣), 500년 된 마을을 지켜온 느티나무와 향나무가 마을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강복석 할머니와 함께 80평생을 함께한 집에 활짝 열린 대문이 반갑다. 마을회관이 생기기 전 마을 주민들을 품어 안았던 반들거리는 마루에는 온기가 스며있겠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길,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 앉아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생각한다.

하루 또 하루...

하늘이 높아만 간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_econojin@naver.com

안산시는 숲의도시입니다

안산시 1인당 도시 숲면적



도시숲의 효과?



깊어가는 가을, 문학의 숲을 거닐다

‘평생학습박람회 & 도서관 책 문화축제’



10월 1일, 호수공원에서 ‘평생학습박람회&도서관 책 문화축제’가 열렸다. 이날 축제는 안산시 시 승격 30주년, 평생학습도시 10주년, 중앙도서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며 강연, 전시, 체험프로그램과 감성 북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학습과 독서의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박람회 42개 체험부스와 안산시 도서관과 지역서점, 출판사가 운영하는 44종의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평생학습박람회 존에서는 안산시행복예절관의 한국 전통차와 다식 체험부터 길거리학습관의 가족공예, 핸드드립 · 천연화장품 · 수제초콜릿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눈길을 끌었다. 노인인구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은빛동지’는 가상여행사진을 합성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북콘서트 등 주요행사를 촬영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문화세상 고리’의 세계전통의상체험과 다문화작은도서관 부스의 우즈베키스탄 모자 ‘주비체이카’ 만들기 등은 다문화 강사들과의 협업으로 다문화도시 안산의 특색이 있는 이색적인 체험으로 아이들의 인기를 끌었다.

‘독서가족인증제’ 우수가족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받은 황영미 씨(고잔동)는 “아이가 매일 밥을 먹듯 책을 맛있게 재미있게 읽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자기표현능력과 정서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도 많이 얻고 있어요.”라며 아이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도서관 존의 ‘텐트인문학’ 부스에서는 배준석 시인, 유명민 작가, 한국부모교육연구원 이배영 원장의 강연과 마임 · 연극 공연이 진행됐고, ‘그림책놀이터’에서는 인형극단의 회전종이극 ‘먹보쟁이 점’이 영사기를 돌리듯 실 새 없이 회전하는 종이그림으로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도서교환전’은 책을 교환하려는 사람들과 책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웹툰작가의 사인회에도 차례를 기다리는 줄이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보다 혼자 책상 앞에서 글로 적어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마음을 전달했던 습관이 저를 작가로 이끌었습니다. 여행 산문집은 중얼중얼 친구에게 얘기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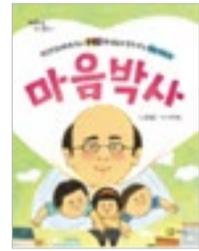
쓴 글이며 시는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 쓴다.”며 담담하고 무심하게 톡, 속내를 털어놓는다. 토크 사이사이마다 요조(Yozoh)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기타 선율에 얹혀 흐르고, 무대 뒤편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한가로운 오후가 누엣누엣 저물고, 시인과 가수가 함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받아주세요.’라며 가을을 노래한다.

긴 기다림 뒤에 찾아온 이 가을엔 ‘얇이’를 하라던 시인의 음성이 귓가에 맴돈다. 아! 가을이다.

책 읽는 안산 / 10월 첫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책읽는 문화의 달, 10월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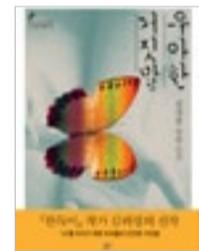


마음박사

저자 윤병문 / 출판사 책내음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읽는 마음 교과서. 이 책은 아이들의 고치기 어려운 습관들, 거짓말, 산만함, 질투, 불안, 화를 가볍게 다룬 뒤에는 친절하게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 주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맨 뒤에 부모님을 위한 각 상황에 맞는 교육법이 나온다.

청소년



우아한 거짓말

저자 김려령 / 출판사 창비

작가 김려령의 청소년 소설. 인간관계와 심리를 깊숙이 파고든 작품의 메시지가 새로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야기는 평범하게만 보이던 열네 살 소녀 천지가 자살하는 사건에서 시작한다. ‘천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언니 ‘만지’는 동생이 남긴 흔적을 좇으며 퍼즐을 맞추어가고, 가슴 아픈 진실이 차츰 모습을 드러낸다.

성인



풀꽃도 꽃이다

저자 조정래 / 출판사 해냄

우리 사회와 교육의 지향점을 제안하는 조정래의 장편소설 「풀꽃도 꽃이다」 제1권. 1년에 40조가 꿈틀대는 거대한 교육 시장에서 고등학교가 되고, 중학생이 된 손자들이 대책 없이 휩쓸리는 것을 보며, 3년간 집중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학교와 사교육 현장을 찾아가 관련 종사자를 취재한 후 소설의 틀을 짜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집필에 돌입해 펴낸 작품이다.

제8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개최

정조대왕 어가행렬 시민들 퍼레이드로 참여해



승·판서·장군·수행군졸을 포함하여 160여 명의 시민들을 모집하고, 당시의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특별하고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다. 어가행렬 시민참여단 모집은 10월 14일(금)까지 안산문화원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장상동(노리울경로당)에서 시작하여 수암동(안산객사)을 지나 행사장 주 무대까지 약 1.5km에 달하는 퍼레이드로 참여하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람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제8회 안산읍성문화예술제’가 오는 10월 29일 토요일, 안산읍성 관아지와 수암봉 주차장에서 열린다. 안산읍성문화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안산읍성 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문화예술제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정조대왕 어가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천지신명에게 행사의 개막을 고하고 안산시의 발전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고유제,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와 경로잔치, 안산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천년 안산 음악회’, 전통문화 체험마당, 민속놀이 체험마당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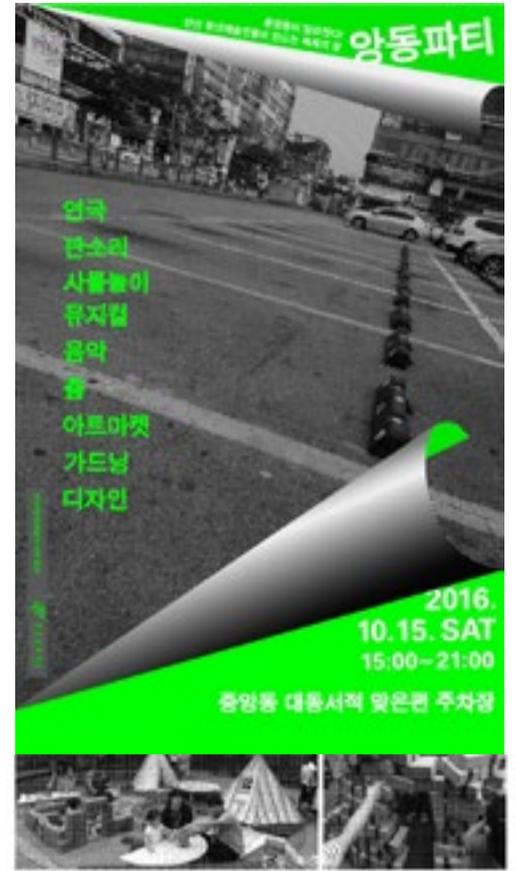
정조대왕 어가행렬, 시민들 참여 유도해

이번 정조대왕 어가행렬은 시민들이 직접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체험단을 모집한다. 정조 및 정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진행

이날 행사에는 ‘천년 안산 음악회’라는 주제로 안산시립국악단의 공연과 사물놀이, 판소리, 퓨전국악, 경기민요, 국악 비보이, 밴드공연도 진행된다. 또한 안산관아 관련 한시를 주제로 ‘취호대회’가 일반부를 대상으로 열린다. 이밖에도 투호놀이, 코뚜레 던져걸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마당과 맷돌체험, 탁본체험 등의 전통문화 체험마당,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안산읍성과 안산동 역사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역사사진전을 통해 안산의 흘러간 역사를 사진으로 엿볼 수 있다.

문의 : 안산문화원 (031-415-0041-0042)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공연

안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공연단체들이 모였다. 활동분야 100여개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3:00 퍼레이드	속세정기일 연행
3:25 김세홍씨종형가 연행	판소리보존회
3:50 성도 사물놀이	풍물마당 최주
4:15 유지컬 판서한 제녀	백말이, 삼피새
4:40 율!	역안 송준
4:55 지혜로운 비로혜!	영국인, 걸출사니
5:10 라미라미 Ramalama	조르니
5:25 유지컬 어느 멋진 날!	국악 동대동경
5:50 풍모스트 안행	창의로운 천재극단 갈반
6:15 전통식노브 Brass Groove	전통식노브
6:50 음악공연	동한연
7:25 소감을 Blind person	여블리스 오션X아이
7:50 숲 쉬듯이	영비극단X댄스컴퍼니
8:15 씨름	여블리스오션 및 속세정기일
8:35 어헤고(Ansan Mini Electro Festival)	DJ 장흥업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10 Culture Calendar</p> <p>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p>	<p>경기도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p> <p>〈기전본색(畿甸本色): 거장의 예술을 찾아서〉</p> <p>일시 2016. 9. 29(목) - 2016. 12. 4일(일)</p> <p>장소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p>	<p>4</p> <p>거장의 예술을 찾아서</p> <p>Gyeonggi's 10 Masters: Two Colors and Real Characters</p> <p>2016. 09. 29 - 12. 04</p>	<p>5</p> <p>단원미술제 대상 제미영</p>	<p>제18회 단원미술제</p> <p>일시 2016. 10. 7(금) - 10. 29(토)</p> <p>장소 단원미술관</p>	<p>7</p> <p>2016 국수축기감무용단</p> <p>코리아드럼 영고 迎鼓</p>	<p>14</p> <p>국악 〈코리아드럼 영고〉</p> <p>일시 2016.10.15(토) 5PM</p> <p>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경기도미술관 개관 10주년 아카이브 전시</p> <p>일시 2016. 9. 29(목) - 2016. 12. 4일(일)</p> <p>장소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p>	<p>17</p> <p>24 / 31</p>	<p>11</p> <p>상록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p> <p>일시 2016.10.11(화) 7:30PM</p> <p>장소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극장</p>	<p>12</p>	<p>13</p> <p>연극 〈B성년페스티벌〉</p> <p>일시 2016.10.19(수) - 11.6(일)</p> <p>평일 8PM / 토 3,7PM / 일 4PM</p>	<p>20</p> <p>Orchestre National de Lorraine</p>	<p>22</p> <p>클래식 〈프랑스 로렌 국립오케스트라 내한공연〉</p> <p>일시 2016.10.22(토) 5PM</p> <p>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26</p>		<p>27</p>	<p>29</p> <p>음악극 〈앤〉</p> <p>일시 2016.10.29(토) - 10.30(일)</p> <p>토 5PM / 일 3PM</p>	

“오카리나 연주하며 행복을 나눕니다”

오카리나 소리와 향기에 취하다

도심 속 콘크리트 건물 안쪽의 작은 사무실 ‘소리향 오카리나’에서 은은한 피리소리가 들려왔다. 14년 전에 오카리나를 배우게 된 ‘소리향’ 대표 백성희 씨는 서울 인사동에서 주로 활동 하다 9년 전 안산에 정착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활동은 3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안산에 오카리나 보급이 많지 않았을 때라 단원들은 지방분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 광명 분들로 이루어졌고 점차 보급되어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은 안산 분들이 70~80%를 차지하고 활동한다고 한다. 오카리나 제자로 만나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향 단원은 십여 년의 시간 속에 쌓인 세월의 때만큼 가족과 같은 진한 정으로 뭉쳐져 있다. 일주일에 한번 씩 만나 강습을 통한 수업을 하고 분기별로 작은 연주회를 열어 실력을 뽐내고 있다. 안산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를 구상하여 학교나 기관 등에서 작은 음악회를 한다. 지난 8월에는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제 14회 소리향 오카리나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회원 70여 명으로 구성된 ‘소리향’은 현재 안산 예술친구에 장려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7중주 앙상블로는 국내 최초로 활동

하고 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며 음악으로 소통하고 행복을 전하고 있다. 소리향 대표 백성희씨는 “오카리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악기이다. 한정되어 있는 클래식 장르와는 달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등산이나 여행을 할 때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좋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호흡을 맞출 수 있어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오카리나는 지수화풍(地水火風, 흙과 물로 빛과 불에 구워서 바람으로 소리를 낸다)이라 하여 자연 친화적인 악기로 대표되고 있다. 앙상블을 하다 보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현실을 배워나가는 계기도 된다고 한다. 요즘은 안산 지역 초등학교에서도 리코더(피리)대신에 오카리나, 우쿨렐레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김선 명예기자 _ itsumo9011@naver.com
김진국 사진기자 _ hanmarus@naver.com

오카리나 상식

tip

오카리나는 점토나 도자기로 만든 취주악기(폐관악기)로 19세기 이탈리아의 도나티가 발명했다고 하며 오카는 거위, 오카리나는 작은 거위를 뜻한다고 한다. 또한 중국 고악기에 공모양의 훈(埙)이라고 하는 도자기제의 악기는 거위알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오카리나의 원형은 구형이었을지 모른다는 내용도 있다. 위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입에 물고 불며 그 뒤 울림구멍이 있고 손가락 구멍은 4~13개로 온음계이지만 손가락 조절로 반음도 낼 수 있다.



안산 오카리나 앙상블 ‘소리향’ 대표 백성희

청년 장애시인 장유진의 꿈

“죽기 전까지 시집 100권 낼 거예요”



“희망을 주어 도와주고 싶다. 나에게서는 희망이 넘치니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행복했음 좋겠다. 아니 내가 아픈 사람에게 행복의 가루를 뿌려주었음 좋겠다. 나보다도 더 아픈 사람 꼭 도와주고 싶다.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청년 시인 장유진 씨(22)의 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에게’다. 시내 한

요양병원에서 장유진 시인과 어머니 이성자 씨를 만났다. 대한민국이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일렁이던 2002년 여름, 당시 8살이던 유진은 뇌출혈로 쓰러져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선천성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 뇌동정맥 기형은 뇌에 생기는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동정맥 기형의 제거가 유일한 치료법이다. 이 씨는 “유진이의 혈관이 너무 많이 꼬여 있어 손을 댈 수 없다.”며 한숨을 쉰다. 답답한 병실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풍경을 ‘서울의 별들은 밤이면 심심해서 땅으로 내려오나보다. 별들이 숨바꼭질도 하고 땅에서 논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씨는 딸의 손에 크레파스를 쥐어주고 이면지를 얻어다주었다.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 2004년에 첫 시집을 출간했으며 2007년에는 <문학세계>에 동시 부문으로 등단해 다섯 권의 시집을 출간한 장유진 시인은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휴학 중이다. 15년간 14번의 뇌출혈로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면서도 스프링노트 60권에 달하는 시를 써왔다. 어머니와 딸이 주고받은 편지 등 투병일기처럼 써온 만 여 편의 시는 시인의 삶의 기록이다. 그녀에게는 시가 삶이고 생명줄이다. 지난 5월 ‘KBS 시청자칼럼·우리사는 세상’에서 장유진 시인

의 투병생활과 시 창작 과정이 소개되기도 했으며, 안산 시평생학습관은 ‘5,000일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시화전을 갖고 동시집 「좋아요 좋아요 나는」의 판매 수익금 300만 원을 장 씨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시집에는 시인의 고운 마음과 맑은 영혼이 담겨있다. 또한 시인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녀의 어머니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모성에 호소한 기도의 목소리도 만날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소망의 선물이다. 이 씨는 ‘유진이의 꿈 목록’을 보여주며 말한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대신 아파주지 못해 미안하죠. 아나운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까워요.”라고... 병으로 장애를 얻었지만 유진 씨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서울의 아나운서 학원에 다녔다. 고등학생 때 KBS 장애인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해 서류에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는 마지막 관문 카메라테스트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했다. “장애인 아나운서가 되어 집이나 병상에서 TV를 보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는 유진 씨. ‘75살에는 노벨문학상 받기, 죽기 전까지 시집 100권 출간하기’ 등 유진 씨의 꿈 목록이 꼭 이루어지기를...

“안산시의 앞선 생태관광정책 배우러 왔어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생태관광 관계자 대부도 방문



수도권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역인 대부도에 지난 9월 23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아세안 센터의 ‘생태관광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가한 아세안의 4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공무원 등 생태관광 관계자 30명이 한국의 앞선 생태관광 정책과 시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부도를 방문했다. 대부도는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환경부에 의해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역 중 하나로 지정됐고, 한-아세안 센터는 접근성이 뛰어난 대부도를 방문단의 생태관광 체험지로 추천했다. 4개국 방문단은 먼저 대부도 초입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들러 세계최대 규모인 조력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11.4km 시화방조제를 한눈

에 볼 수 있는 T-라이트 전망대에 올랐다.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는 시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설명하고 대부해솔길 종현마을 동주염전 등으로 방문단을 안내했다. 방문단은 코끼리열차로 이동해 바다향기를 맡으며 대부해솔길을 걸었고, 종현마을의 썰물에 드러난 갯벌에서 바지락을 쫓았다. 또 동주염전에서 염부가 되어 대파를 밀며 소금을 한데 모았다. 라오스의 관광산업 관계자 모미 씨는 “본국에 돌아가면 주변사람들에게 대부도를 소개하겠다.”며 “다시 한 번 대부도를 방문해 라오스에서 볼 수 없는 낙조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를 활용하는 생태관광 상품 개발에 각 나라별로

관심이 쏠리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을 보존하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되돌리는 생태관광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서로 연계해 패키지로 생태관광 개발 전략을 세우자는 ‘팍세(Pakse) 선언문’을 공식 채택하기도 했다. 내년 9월에는 대부도에서 전 세계 생태관광인들의 축제라 할 수 있는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시 관계자는 “대부도는 생태자연과 관광체험이 어우러진 수도권 유일의 생태관광지역”이라며 “천혜의 자원을 잘 살려 생태관광사업을 펼쳐갈 것”이라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 031-481-3059 | 백미란 명예기자 _whity0218@naver.com



책처럼 장난감도 대여가 가능해요

희망장난감도서관 개관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안산시평생학습관(상록구 차돌배기로 24) 3층 도서관동에 개관했다.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안산시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장난감과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외부세상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신세계에서 지원하는 희망배달캠페인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하여 아동의 교육 및 보호를 위한 놀이시설 보급을 목적으로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제주1호관을 시작으로 안산에 제59호관을 개관

했다. 장난감도서관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장난감 대여와 놀이실 이용이 가능하다. 36개월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가 이용가능하며 안산시에서 근무하는 부모의 자녀도 이용이 가능하다. 매주 월, 일요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휴관한다. 회원 가입은 장난감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 카페에서도 장난감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문의 : 희망장난감도서관 (031-409-2300) 장난감도서관 카페 <http://cafe.naver.com/ansanhopetoy>
이선희 명예기자 _iamyou70@hanmail.net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걸 잊지말아주세요”

세월호 엄마아빠의 공예품 베품시장 ‘엄마랑 함께하장’ 열려



세월호 엄마아빠들이 주민들과 이웃으로 만날 수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터, ‘엄마랑 함께하장’이 지난 8일과 9일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다. 416공방에서 만든 다양한 수공예품과 목공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엄마랑 함께하장’은 416가족협의회와 온마음센터가 벌써 3회째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노란 파라솔이 늘어진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주변에는 오전부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세월호 엄마아빠들이 만든 다채로운 공예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축제에서 마련한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를 여유롭게 즐기는 풍경이 펼쳐졌다. 양말목과 매듭을 이용해 만드는 수공예품

은 세월호 엄마들의 도움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인기가 좋았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모습을 세월호 부모님들이 엄마마음으로 흐뭇하게 지켜보며 도왔다. 이런 시간을 통해 유가족들도 시위현장이나 분향소가 아닌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만나며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 416공방의 성빈엄마 김미현 씨는 세 번째 ‘엄마랑 함께하장’을 준비하며 느끼는 마음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주민들과 약간 서먹했는데 이런 편안한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 같아요. 엄마들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작년에 행사 처음 시작하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계속 안산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엄마아빠들이 만든 작품들은 더 다양해졌고 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목공, 자수, 퀼트, 압화, 원예 등 참사 이후 몇 년간 폭풍 같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움직여 만들어낸 작품들의 내공이 느껴졌다. 속울음을 몇 번이나 삼키며 험한 상황 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잎 하나하나를 새겨 넣었

을 엄마들의 마음이 작고 간결한 작품 속에서 아프게 전해졌다. 꽃 자수 브로치 안에 작게 새겨 넣은 노란리본처럼 세월호 부모님들이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소박한 것이 아니었을까. 416공방은 2년째 열리는 ‘엄마랑 함께하장’을 통해 나온 수익금을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다. 1,2회 행사 때는 지역아동센터 난방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이번 행사 후에는 수익금 일부를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세월호 부모님들의 활동공간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주민들이 평소 나누지 못했던 마음을 나눌 수 있던 시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분향소 하늘을 비쳤다.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EBS영어교육방송으로 영어 공부해요

양지초등학교, 2016 EBS®반대항 행사 전국1위 달성으로 환호!



사진설명_아이들 부상으로 도서상품권을 받고 즐거워 하는 모습

양지초등학교는 EBS 영어교육방송에서 무려 한 달 이상 실시한 EBS® 반대항 행사에 참가하여 당당하게 3학년과 4학년 부문 전국 1위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경기도교육청 대표 EBS영어교육방송 홍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지초 4학년 1반 담임 박미애 교사에게 EBS 영어교육방송 활용에 대해 들어보았다.

EBS영어교육방송 반대항 영어 행사를 진행한 이유는 뭘까요?

영어교육방송을 들으면 따로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콘텐츠로 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리고,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신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반대항 영어행사에 어떻게 진행됐나요?

여름방학 때 ‘EBSe 활용 영어캠프’를 3, 4학년 대상으로 하면서 3, 4학년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각 학년 부문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학급이 도전한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EBSe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는지?

‘I can read’, ‘Fun reading’ 프로그램으로 모두 영어독서교육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침활동 시간 10분 동안 ‘I can read’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2주에 걸쳐서 1권의 영어동화책을 읽게 됩니다. 방송시청을 한 후, 그와 관련하여 정리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이를 바

탕으로 독서록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Fun reading’은 개별 학습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서, 각자 영어실력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Fun reading’에는 레벨별로 영어동화책이 마련되어 있어서, 학생 스스로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모든 영어동화책 프로그램은 전-중-후 활동을 위한 워크시트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교사가 따로 활동을 많이 준비하지 않고도 쉽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활용결과?

학생들이 일단 영어에 대해 흥미와 자신감을 가졌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영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 큰 결실을 맺은 것이죠. 아이들이 영어노래를 흥얼거리고, 영어표현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모습을 보면 영어교육방송을 시청하면서 영어에 많이 노출되고 친숙하게 여겨진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의 : 양지초등학교 (031-414-8473)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베트남 바리어붕타우성 인민회의 대표단 접견

양 도시 간 우호 증진 및 협력 방안 논의



사진설명 안산시의회의 의원들이 지난 9월 30일 베트남 바리어붕타우성 인민회의 대표단을 접견했다. 사진은 이날 의정실에서 의원들과 바리어붕타우성 인민회의 대표단이 함께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가 최근 베트남 바리어붕타우성 인민회의 대표단(단장 쩌딩과)과 양 도시 간 우호 증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근 의장과 유화 기획행정위원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김재국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의회를 찾은 쩌딩과 바리어붕타우성 인민회의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인민회의 대표단 일행과 환담한 뒤 의회 시설 라운딩을 실시했다. 베트남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바리어붕타우성은 인구가 107만 명으로, 철강산업과 조선업, 정유산업 등이 발전한 남부 중점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성 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와 유사한 기구다. 이날 인민회의 대표단을 맞은 자리에서 의원들

은 지난 공무 국외 연수지로 베트남을 다녀온 도시환경 위원회의 사연을 소개하는 등 베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현재 두 도시의 관계를 우호협력에서 자매결연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환담 후 의원들은 대표단 일행과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실을 라운딩하며 시설을 소개했고, 바리어붕타우성 대표단은 의회에 구축돼 있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민근 의장은 “두 도시는 바다와 인접해 있고, 인구나 도시 규모 등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진행해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민근 의장, 美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로부터 감사장 받아

샌프란시스코 한인의 날 행사 빛낸 안산시립국악단 공연 관련



사진설명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사진 가운데)이 9월 3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은 이날 의회를 방문한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 임직원들이 대신 전달했다.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이 최근 안산시립국악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인의 날 문화축제에서 공연한 것과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측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민근 의장은 지난 9월 30일 의정실에서 이날 의회를 방문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 토마스 김 회장과 임직원 일행이 전수한 상을 받고 문화 교류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측은 “9월 17일 열렸던 제24회 한인의 날 문화축제에서 안산시립국악단의 공연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당시 동행해 자리를 빛

내 준 이민근 의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안산시와 샌프란시스코시 사이의 우호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다. 감사장을 받은 이민근 의장은 “당시 샌프란시스코 한인의 날 행사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인 국악을 미국에 알리는 한편 국악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 같은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규·김정택·전준호 의원, 주민협의체 2차 회의 참석

상록수 119 안전센터 이전 계획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 등 협의



사진설명 안산시의회 김동규·김정택·전준호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본오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본오3동 주민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안산시의회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과 김정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전준호 의원이 상록수 119 안전센터 이전 계획에 따른 현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열린 ‘본오3동 주민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안산시 본오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주민센터 관계자들과 시의원들을 비롯해 주민협의체 위원, 샘골로 번영회장, 샘골교회 목사,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상록수 119 안전센터 현 부지에 들어서게 될 건물 규모와 층별 세부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 결과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주민 편의시설로 도서관과 청소년 이용 공간, 다목적 회의실, 영상 미디어실 등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등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추후 개최될 3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귀 기울여 들은 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축 공간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사용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본오뜰
벼 베기

1000년 도시 안산.

안산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하기로 유명했다. 해산물도 많이 나지만 낮은 구릉지가 많아 쌀농사도 활발했다. 본오뜰의 벼 베기는 안산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마침 상록오색길 <본오동 들판길>도 있으니 농부들의 벼 베는 모습을 풍경삼아 이 가을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hanmarus@naver.com



청년안산이 좋은 5가지 이유

- 01 전국 최고의 녹지율, 아이와 함께 뛰어 놀기 좋은 푸른 안산이 좋아요.
- 02 높은 구릉이 없고 잘 이어진 천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 좋아요.
- 03 전국 최초 노동인권조례 제정으로 행복한 삶의 출발을 함께 노력해요.
- 04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 05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요.

- 01 녹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가족과 함께 공원 나들이를 많이 하게 되네요.
- 02 안산예술의전당의 ASAC예술제나, 좋은 공연들로 문화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 03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배움에 대한 열의를 키울 수 있어요.
- 04 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으로 영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서 운동이 잘 확산 되어 시민으로서 뿌듯합니다.
- 05 안산9경은 그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런 장소입니다. 멋진 풍경이죠. 많은 분들과 아름다운 경치를 공유하고 싶어요.

- 01 자연친화적 도시 안산 - 호수공원의 녹음을 보면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산책할 수 있고, 가족과 소풍 와서 놀이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참 좋다.
- 02 안산천에 사는 물고기와 철새들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 03 페달로와 자전거도로가 곳곳에 있어 매연을 품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다.
- 04 무료로 집으로 오는 시정 소식지 '브라보안산'은 적당한 분량으로 보기 좋게 편집되어 있어서 단숨에 읽어내리며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다.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05 도심 한복판에 넓은 '안산문화광장'이 있어서 끼를 발산하고 펼칠 수 있게 해 줘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당첨자 | 조원혜, 이상욱, 이옥자, 김주한, 서덕인, 박애란, 이혜숙, 안주연, 김미정,
발표 | 방지원, 변영희, 우영숙, 유향희, 홍순옥, 김춘열, 박정화, 강광옥

30년 '청년 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작은 생각

1986년 안산이 시로 승격된 지 30년이 지났다. 논어에서 공자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삼십을 자립의 '립(立)'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고 말했다. 서른이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한 기초 위에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0년을 걸어온 청년 안산은 스스로 무엇을 세웠으며, 100년 도시의 안산은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위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100년 미래도시 안산은 어떤 핵심가치로 서 있어야 할 것인지 돌이켜 본다.

30년을 걸어온 계획산업도시 청년 안산은 1986년 국내 최초로 계획된 공업도시 및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 세워졌다. 30년 동안 인구 규모 12만7천 명에서 다문화 인구 6만을 포함한 75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사업체 종사자수는 5만8천 명에서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내총생산(GRDP)도 1조2천억에서 22조5천억으로 20배 이상 증가한 모습에서 청년 안산은 성공한 계획도시로 안산 발전의 중심축을 굳건히 구축하였다. 성공한 청년 안산은 940년 고려 태조 때 '안산군'으로 지칭된 이후 유구한 역사, 문화와 예술을 가진 1000년 안산의 힘으로 구축한 사회문화적 기반위에 굳

건하게 세워졌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안산은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해산물을 자랑하는 정조대왕이 어제시(御製時)에서 노래하듯 '천하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실학의 거장 성호 이익의 실용적 사고와 접목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런 풍요의 도시를 바탕으로 조선 최고의 화원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 등 찬란한 예술과 문화를 꽃피운 고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계획된 산업도시 안산은 일하고 싶은 도시로 여겨져 전국에서 많은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되었고 2000년대 이후 전세계 80여 국가 6만여 명이 일하고 거주하는 다문화중심 도시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1000년의 역사문화와 성공한 계획산업도시 청년 안산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후화된 산업단지, 시화호 환경오염과 공단 악취, 외국인 강력 범죄, 세월호 등 일부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안산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산스마트허브와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연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혁신하는 등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수도권 최대의 친환경 첨단 산업도시,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생태의 보고 시화호 살리기 등을 통한 경기만 최고의 해양생태관광 및 에너지 자립도시, 그리고 안산 다문화 마을 등 전국 최고의

다문화 선진사례를 구축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어 가고 있다.

안산은 1000년의 역사, 문화 및 예술의 자산이 깃들여 있고 30년 동안 계획에 의해 성공적으로 변화한 공간임에 틀림없다. 성공한 계획도시 '삼십이립(三十而立)' 청년 안산이 앞으로도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천년의 자산과 30년의 성공과 세월호 치유를 함께 담는 미래 안산이 지향해야 할 기본 핵심공유가치와 더불어 어우러진 공동체이다. 즉 천년동안 구성해온 안산의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성장하는 누구나 일하고 살고 싶은 공동체를 키우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 가치의 성공은 시민-대학-기업-정부 간 협치(協治)의 거버넌스에 달려있다. 시민, 대학, 기업, 정부사회 모든 구성원이 천년의 자산과 30년의 성공과 세월호 치유를 바탕으로 미래 안산의 주인으로 살 때 안산이 '가장 살기 좋고 매력있는 도시'로 스스로 세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송창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도시 및 공공정책학 박사

2016년 건강 체험 한마당을 다녀와서



중학생 아들의 자원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 안내문을 들고 호수공원에 갔다. 날씨도 좋고 특별한 일이 없었기에 딸의 친구들과 엄마들까지 모두 소풍삼아 나간 것이다. 행사시작 전에 도착해서 그런지 스태프들이 준비하느라 분주해 보였다. 여기 저기 기웃거리며 건강에 대한 안내 책자와 선물도 받고 치아검진, 우울증진단, 걸음걸이 측정, 유방암 설명 등을 듣고, 푸짐한 선물들에 감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네일아트를 한다고 길게 늘어진 줄에서 기다리느라 한창이었다. 아들은 혼자서 스태프 받느라 바쁜 모양이었다. 건강퀴즈대회를 한다고 모두 모이라고 했다. 주관식도, 객관식도 아니고 OX 퀴즈라고 누구든 오라고 했다.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건강상식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 '안산에 금연아파트가 있는가' 라는 문제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해서 패자 부활전을 하게 되었다. 모르는 문제였기에 망설이고 있는데,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있어"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O자리로 가기에 '학교에서 배웠나 보다' 생각하며 따라갔더니 틀린 것이다. 금연아파트는 주민 반 이상이 찬성하면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아파트도

금연아파트 찬성여부를 조사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좋겠다. 핸드크림과 물티슈, 장바구니 등 다양한 물건을 푸짐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평소에 함께 하지만 사진 찍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엄마들끼리,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안산에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힘들 때 상담할 수 있는 생명의 전화가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가까이에 이렇게나 많이 있어서 감사했다.

많은 가을날에 좋은 사람들과 햇살을 받으며 함께 하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듣고, 진단하고 올 수 있어서 유익했다. 스트레칭 체조를 하며 몸을 풀기도 하고 지압기로 손을 누르니 좀 아프기는 하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가까운 곳에서 건강 체험도 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한 토요일 오후였다.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시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기존 20L도 작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반으로 줄어버려서 너무 난감합니다. 가정용과 업소용을 따로 분리해서 판매를 해주든가 기존 20L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음식물쓰레기는 많은 수분과 함께 배출돼서 무게도 많이 나가고 배출과정에서 찢어지고 악취가 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L의 규격봉투는 사용량이 많지 않고 수거에도 어려움이 있어 점차 제작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 규격이 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선호하고 있어 당분간은 계속해서 제작 판매해 나가겠습니다.

• 시청 자원순환과



라이브러리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2영어자료실과 미디어자료실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됩니다. 시에서는 각 층이나 문 앞에 주의 글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보다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러한 점들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유아실, DVD상영실, 이음카페 등은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많다 보니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도서관 직원들이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각 층에 안내문을 눈에 띄도록 부착하고 정숙한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미디어라이브러리도서관



안산에 최근에 이사 온 시민입니다. 주차장 이용 정보가 너무 오래되거나 맞지 않는 정보가 많아 업데이트 요청 부탁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대로 공휴일엔 요금 안 받는 줄 알고 갔다가 요금 부과된 적이 많네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인 만큼 정보업데이트를 자주 자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시청 교통정책과

시민의 의견을 크게 듣겠습니다



- 시장에 바란다 <https://mayor.iansan.net>
-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매월) <https://sotong.iansan.net>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동 방문(월 2회)
- 안산드림TV <http://ansandream.tv>
- 시민제안 <http://idea.iansan.net>

안산시 소셜방송 안산드림TV와 함께할 명예기자 모집

영상 비전문가도 스마트폰 촬영교육 수료 후 안산의 다양한 이야기 홍보

모집인원 10명 **접수기간** 16. 10. 14 ~ 10. 18(5일간)

접수방법 이메일(batv@iansan.net) 또는 공보관실 방문접수

응모자격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자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영상제작에 관심이 있는 자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취재기사 1부 (최근 3개월 이내 안산관련 소식)

※ 서식은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고시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031-481-3152

제 5회 신길 신석기마을축제

안산 첫마을로 떠나는 신석기 여행

일 자 2016. 10. 22(토) 13:00~17:00

장 소 신길역사유적공원

문 의 031-492-2707/010-3775-6562 (담당자: 임윤희)

2016년 대시민강좌

“좋아하는 일을 해라. 자아가 행복해진다”

강 사 송형석 (마음과마음정신과 원장)

일 시 2016. 11. 4(금) 13:30~16:00

대 상 안산시 지역주민 누구나 **비 용** 무료 (기념품 증정)

문 의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31-411-8445~8446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시행일 2016. 10. 4 - 2016. 12. 31

* 단, 접종대상자가 1차접종후 2차접종을 미완료한 경우에만 한하여 17년 1월까지 2차 접종 실시

대상자 생후 6개월~12개월 미만 영아 (2015. 10. 1 ~ 2016. 6. 30 출생아)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외국인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안내사항 백신을 소량 보유한 의료기관이 있어 방문 전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사전예약 또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s://nip.cdc.go.kr>)에서 접종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 기관검색 후 방문하세요.

* 문의 상록수보건소 ☎ 031)481-5971~3 단원보건소 ☎ 031)481-3513~5

내일 찾는 희망 일 드림 박람회

일 시 2016. 10. 19(수) 14:00~16:00

장 소 안산시청 대회의실

행사규모 구인업체 40개

행사내용 구인·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

문의 일자리정책과 031-481-2277,2919

